



## 올림픽시설계획 현상공모 서울市 경기장·공원등 건설계획

서울시 올림픽시설 기획단은 올림픽에 대비한 경기장 시설과 올림픽공원, 체육계 학교 등 시설을 포함한 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립경기장 단지계획 경쟁현상공모 요강”을 발표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마감하는 공모 내용을 보면 설계대상지역(서울 강동구 이동, 방이동, 둔촌동 일대 약 1,674,480㎡)에 5개 경기장과 올림픽공원 및 체육계 학교 등을 수용하는 국립경기장 건설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와 관객의 위락은 물론 대회 후 방문객을 위한 위락공간으로 제공될 종합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설이 세계속의 한국을 상징하는 조형예술이 되도록 할 것과 경기장과 학교는 앞으로 우리나라 체육발전의 요람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지계획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을 비롯해서 교통(동선), 공원녹지(조경), 주요 구역별 시설배치, 하부 구조계획 등이며 국립 경기장에는 체조, 펜싱, 탁구, 수영, 자전거 경기장이 수용된다.

시설기획단은 이번 공모에 따른 심사위원과 심사 과정을 일반에 공개하고 당선작 1점(상금 2천만원)과 가작 2점(상금 각 1천만)을 선정 발표 후 일정기간 전시할 계획이다.

## 독립기념관 설계 현상공모 기본계획안 근거로 2단계로

독립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는 독립기념관의 건축 및 상징 조형물에 관한 기본설계를 현상공모키로 하고 이를 공고했다.

추진위가 발표한 공고내용을 보면

건립 예정지인 충남 천안군 목천면 남화리와 신계리 일대에 동위원회가 성안한 기본계획안을 근거로해서 기념관의 배치계획 및 기본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2단계로 나누어 1단계에서 입선된 10개 이내의 작품으로 2단계 설계에 들어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응모자격에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설계를 위한 질의는 5월 28일과 6월 30일로 나누어 두차례로 했으며 단계별로 분리해서 공통답변서를 응모자에게 우송할 예정이다.

1단계 현상공모 마감은 오는 7월 30일로 정했으며 현장설명 참가자에 한하여 지형측량도 및 보충자료를 제공키로 했다.

한편 현상공모작품은 9인의 심사위원과 7인의 특별심사위원이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원 = 金熙春 △金重業 △金正澈 △尹承重 △金壽根 △金根德 △韓昌鎭 △康炳基 △俞炳林

□특별심사위원 = △朴鍾國 △孫寶基 △李鉉淙 △權泰峻 △吳輝泳 △金洹 △金錫澈

## 「建設技研」연내 發足키로 순수민간기구로 운영토록

재단법인 建設技術研究院(가칭)이 연내에 발족된다.

건설업계는 건설기술개발을 촉진키 위해 건설부산하 기관인 國立建設研究所의 연구기능을 흡수, 올해 35억원의 재원으로 별도의 연구원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순수한 민간기구로 大韓建設協會산하에 두고 운영될 예정이다.

건설부 및 업계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 설립을 위해 13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위원장 金鍾燮·大韓建設協會부회장)를 설치, 구체적인 설립추진계획 및 운영·재원확보방안등을 협의하고 있다.

설립재원은 ▲海外建設진흥 기금 ▲建設共濟조합 ▲大韓建設協會 ▲海外建設協會 ▲大韓建築士協會 등

에서 각각 출연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부는 이에 따라 작년에 조성된 해외건설진흥기금 51억 3천 5백만 원중 일부를 연구원 설립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이 진흥기금은 해외건설공사손실보전, 기술개발, 국제협력, 기타 해외건설진흥에 필요한 사업등에 쓰기 위해 작년부터 조성하고 있는 자금으로 해외건설업체의 소득공제액 및 기성액의 0.2%가 각출되고 있다.

연구원설립 추진위원회는 이번주내로 회의를 갖고 연구기구 및 정원·운영방안 및 기능·정판안과 설립장소등을 확정지을 방침인데 이 계획이 확정되면 國立建設研究所는 건설시험소만 운영케 된다.

건설부는 현재의 국립건설연구소가 연구재원부족으로 전문연구원을 확보치 못해 제기능을 수행치 못하고 있음을 감안, 연구기능을 法人체제로 이양하는등 발전적으로 해체할 것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다.

## 乙支路재개발계획안 발표 본회 會員 3명作品 당선

주택공사가 실시한 을지로 2가 지역의 16·17지구 재개발현상설계에 대한 결과가 발표되었다.

지난 3월 28일에 발표된 심사결과에는 총응모 작품수 14점 가운데 본회 회원인 화선건축연구소(具琬會), 김중업합동건축연구소(金重業), (주)천일건축기술공단(宋丁憲·姜永浩) 등 3개 회원사의 안이 당선작으로 뽑혔으며 그밖에 (주)한양엔지니어링, 금성건축연구소, (주)서울건축건설탄트가낸 3개 작품이 가작으로 선정되었다.

## 140만평규모 新市街건설 서울, 新市·木洞에 3만家口

서울 서부지역에 대단위 임대주택 단지가 건설된다. 서울시는 강서구 목동200, 신정동80 일대 安養川 주변 1백40여만평 절대농지에 2만 4천~3

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건립한다는 것을 골자로한 「목동지구 주택공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경작지로 사용 중인 절대농지를 해제, 택지로 바꾸고 사업구역내 토지를 전부 서울시가 매입하여 직접 관리 운영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도시 개발에 있어 토지구획 정리사업 방식을 버리고 대상토지를 모두 매입하여 대규모 임대주택 단지를 조성, 토지를 공영관리키로 결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목동지구 주택공급 사업에는 모두 9천억원이 소요되며 그가운데 2천억 원은 토지매입분이다. 소요예산은 정부가 국민주택자금등을 동원하여 전액 지원하며 공사 완료시기는 85년말이다.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보면 2만 4천~3 만가구분(10만~12만명)의 아파트를 지어 일시에 분양하며 이 가운데 상당량은 임대아파트로 활용할 계획이다.

새로짓는 아파트는 중산층 및 서민층을 대상으로 분양하되 주민들의 기호에 맞도록 10~60평 규모로 다양하게 세운다.

전체 1백36만평중 주택용지는 68만평으로 50%를 차지하며 상업용지가 10만 9천평, 공원등 공용용지가 57만평이다.

현재 사업대상지역은 지난 2월 18일 국세청에 의해 특정지역으로 고시됐다.

서울시는 내무부의 과세지가 표준액, 실거래액 등을 참고하여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친뒤 토지가를 개별 결정, 매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이용 현황은 논밭이 1백16만평 대지가 13만평, 기타 6만 9천평 등이다.

사업지구내에는 현재 약 2천 6백여 채의 불량주택이 안양川변을 따라 흩어져 있으며 이가운데 상당수는 무허가 건물이다.

시는 이들 불량주택을 모두 철거할 계획인데 허가가 나있는 건물 소유주에게는 아파트 입주연고권을 출 방식이다.

사업순서는 절대농지해제, 주택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토

지매입, 저지대매립, 주택 건립 등이 다.

공동주택 건립과 함께 시는 공·사립학교를 충분히 유치·신설하고 유명쇼핑센터, 백화점등도 유치할 계획이다.

체육시설로는 대규모 종합운동장이 들어서며 현재 지하철 2호선 문래역과 지하철 차량기지간 2.5km 노선을 활용, 지하철 支線을 운영한다.

### 風致지구등에 건축완화조치 서울市, 건축조례 개정

서울시는 자투리땅 소유자의 건물 신축을 돕고 미관·풍치지구 안에 각종 생활편익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등의 건축조례를 개정,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르면 지금까지 풍치지구내에서 자투리땅에는 집을 지을 수 없었던 것을 주변에 건물이 짝 들어차 대지의 추가확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 2백평방m(62평)만 있으면 신축이 가능토록 했다. 또 풍치지구내의 전폐율을 10분의 2에서 10분의 3으로 늘리는 한편, 60%로 제한됐던 용적률을 삭제했다.

이밖에 완화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제한 완화=미관지구, 풍치지구, 교육 및 연구지구내에 방앗간 설치가능 또한 미관지구내 뒷면의 미관을 해치지않는 장소에서는 세탁소, 정육점, 장의사 설치 허용  
▲풍치지구내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완화=후면 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를 0.5~1m로 축소

▲미관지구내 대지안의 공지=후면대지 경계선으로 부터의 확보규정을 삭제해 건축법시행령의 일반 규정에 따르도록 함

▲미관지구내의 건물모양= 11층이상 또는 1만평방m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1%이상을 문화, 미술장식에 사용토록 권장

▲나무를 심기가 부적당한 대지에서는 나무를 심는데신, 파고라(藤棚)조각물, 정원석, 연못분수대등 조경 시

설물로 대치가가능토록 허용

▲용적률 일부완화=특정가구 정비지구, 도시설계수립구역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상업지역 1천%, 주거지역 4백%, 준주거지역 7백50%로 규정

### 土地개발 公營化확대 全國的으로 실시 계획

정부는 앞으로 대단위토지개발방법을 지금까지의 토지구획사업방식에서 벗어나 공공기관이 직접 땅을 매입, 건물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하는 公營土地개발방식으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서울市가 최초로 서울의 木洞과 新亭洞에서 벌일 公營土地개발방식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기본원칙을 세우고 이같은 방침을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앞으로 대단위 주택단지나 공업단지 등을 새로 개발할 경우에는 土地개발공사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를 모두 사들여, 직접 건물을 지어 민간에게 분양 혹은 임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公營土地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財源확보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가 과거의 토지구획 정리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토지개발방식을 택하기로한 것은 토지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막고, 개발이익을 公共목적으로 흡수하기 위한 것이다.

### 인테리어作品展 열려

#### 인테리어디자인協會 주최로

한국 인테리어디자인협회(회장 김원)의 세번째 회원작품전시회가 지난 달 4월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하얏트호텔 전시실에서 열렸다.

회원작품전시회를 겸해 국제학술강연회도 있었는데 이번 강연회에는 한·일간 인테리어에 관한 것이었다. 한편 전시회에는 회원작품 뿐아니라 관련업체작품도 함께 전시되었으며 작품집(제4집)도 선을 보였다.